

(No Subject)

From: skoong.jlt (skoong.jlt@gmail.com)

To: su_koong@yahoo.com

Date: Saturday, July 8, 2023 at 11:01 AM MST

#245. 히스기야왕의 범죄함.
열왕기하 20장 12-19절

오늘 새벽에는 히스기야왕의 범죄함과 실패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한다.

열왕기하 19장부터 20장 11절까지 비록 허물과 죄가 있는 왕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한 왕이 일순간에 하나님앞에 범죄하여 실패함에 대하여 쓰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20장 11절-19절 말씀에서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본다.

그 범죄의 정체는 교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와 유다왕국을 부요케 하셨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모든 재물과 영광이 자신이 이룬 것이며 자신의 것인양 스스로를 높이고 망녕되이 먼지방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조상때부터 쌓아둔 모든 보화까지 하나도 숨기지않고 자랑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같이 교만과 허영에 빠지는 죄.

그리하여 자기가 하나님앞에 왕으로 책임진 유다왕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가 자랑한 만큼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을 당하리라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위급할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자신과 나라도 구하고 여러 축복과 형통도 선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의 연장도 허락받고 해시게가 뒤로 물러나는 기적도 체험한 왕이었어도 교만하여 죄에 빠지니 결국 그 나라도 잃고 조상때부터 모아둔 모든 재물도 빼앗기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됨을 배우게 된다.

이 판결은 바벨론 왕의 힘이 강해져서 당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범죄함에 판결을 내리시고 이루시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만큼 교만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일이며 성공후에는 더욱더 조심해야함을 배울수 있으며 하나님은 두려워 해야 할 분이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함을 배운다.

죄의 본질 세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히스기야왕은 그 중 이생의 자랑의 죄에 넘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영적인 사람이란 은사 충만한 사람보다는 죄의 정체를 바로 이해하고 항시 그 죄에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시 죄와 싸우며 하나님앞에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잃게되고 자기 영광에 스스로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자기것인양 자랑하고 망녕되이 행하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자가 될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교훈받게 된다.

참된 청지기 믿음을 갖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과 나라를 지키며 안전하며 더욱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이 아침에 묵상을 통해 배우게 된다.

낮아질수록 더욱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 낮아지도록 힘써 기도하자.

6/21/2023. 05:58. 수요일. 뉴튼집 다락방에서.